

문화탐방

제주유배문화의 스토리텔링 콘텐츠적 성과

- 추사 김정희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수 양진건

추사유배길은 조선시대 예술가이자 서예가인 추사의 제주 유배 콘텐츠를 당대의 제주의 현실에 맞도록 재해석 하여 과거를 재현하는 작업을 전재하였다. 추사의 제주유배 생활과 그가 남긴 문헌을 바탕으로 추사유배길 3개 코스가 개발되었다. 추사유배길을 김정희 유배 콘텐츠를 바탕으로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담았다.

J E J U D E V E L O P M E N T F O R U M

1. 제주유배문화

제주유배문화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대학에서 학문적인 수준에서 이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의 선친인 양순필교수의 『제주유배문학연구』가 그 시발점이 되면서 시작된 제주유배문화 연구는 그동안 문학은 물론 교육학 특히 지방교육사 연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던 가운데 2010년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으로 「제주유배문화의 녹색관광자원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사업」이 선정되면서 제주유배문화가 문화콘텐츠로까지 확장을 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제주유배길과 같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이 만들어지면서 제주유배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게 되었다.

유배문화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적으로 높는데 경남 남해군이 “남해유배문학관”을 개원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서는 추사박물관 개방을 앞두고 있고, 전

남 신안군이 “흑산도유배문화공원”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외국에서는 나폴레옹의 유배지인 세인트헬레나 섬이 독특한 관광지로 개발되었고, 소동파의 유배지였던 중국의 하이난도 역시 마찬가지다. 제주도에서는 국가지정 사적 478호로 추사관이 새롭게 개관을 하여 관광객을 맞고 있다.

제주도는 270여명의 유배인들이 내도했던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배지였지만 이에 비해 유배문화에 대한 관심은 다소 소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임에도 불구하고 유배문화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우선 유배문화가 제주도의 자주적인 혹은 자생적인 문화가 아니라는 회의감 때문이다. 그리고 유배 때문에 제주도가 이미지 나쁜 섬으로 각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한몫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연세대 문정인교수는 제주인을 '현재 제주 땅에 뿌리내리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제주출신으로서 육지와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 또한 제주출신은 아니지만 제주도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제주에 대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로 정리했다.



이렇게 볼 때 제주유배인은 제주출신은 아니지만 제주도와 이해관계를 맺었던 사람들로 제주인의 범주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다. 따라서 그들과 제주도 토착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문화가 바로 제주유배문화인 것이다. 그러기에 제주유배문화는 다른 지역의 문화가 아니라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라는 점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배는 형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때문에 유배문화를 제대로 이해할수록 제주도

가 이미지 나쁜 섬으로 각인될 것이라는 점은 한갓 기우에 불과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제주유배문화는 신화나 전설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특별한 자산이다. 특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인문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의 원형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관심이 필요하다.

조선시대의 임금인 태조에서 철종에 이르는 25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각 왕별로 편찬,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에 유배와 관련된 기사가 대략 5,860여 건 나온다. 이를 분석해보면 빈도수가 많은 유배지가 대략 40여개이고 이들 가운데 1위에서 5위까지는 모두 섬이다. 그 섬 가운데 1위가 바로 제주도다. 이렇듯 제주도는 조선시대 최고의 유배지였다.

2. 추사 김정희

이런 제주도와 관련된 유배인은 대략 27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바로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이다. 추사를 알리는데 한몫을 한 사람은 분명 유홍준이다. 그동안 추사와 관련된 많은 책들이 출간되었지만 유홍준의 『완당평전』(2002)만큼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도 없다. 더욱이 유홍준은 제주도에 대한 애정도 남달라서 최근의 추사관 개관에 큰 역할을 했다.

『완당평전』 이후에도 정병삼 등의 『추사와 그의 시대』(2002), 이상국의 『추사에 미치다』(2008), 박철상의 『세한도』(2010)와 같은 역작들이 출간되고, 제주출신 소설가 오성찬의 『세한도』(2001)를 위시하여 한승원의 『추사』(2007)와 같은 소설이 발표되는 것을 보면 추사에 대한 관심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으리라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최준호가 『추사, 명호처럼 살다』(2012)를 보태기도 하였다. 이런 형편이니 추사에 대한 열기가 식을 리 만무하다.

그런데 이들 저작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추사의 생애 중 가장 중요하다는 9년의 제주도 유배기간을 전혀 또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어 정작 아쉬움이 큰 게 사실이다. 『완당평전』에서 비교적 많이 다루었다고는 하나 오류가 많으며 그것은 다른 저작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정이다.

이런 형편에서 필자는 「제주유배문화의 녹색관광자원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2011)라는 스토리북을 출간함으로써 다른 어느 것보다도 추사의 9년간의 제주도 유배생활

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았다.

추사 김정희는 이른바 윤상도 옥사(尹尙度 獄事)에 연루되어 제주도로 유배를 오게 된다. 윤상도라는 사람이 탐관오리를 탄핵하는 상소를 순조 30년(1830)에 올렸는데 오히려 왕의 미움을 사서 추자도에 유배되고 이때 추사의 아버지가 배후조종혐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추사의 아버지가 유배생활도 하고 죽게 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10년 후인 현종 6년(1840)에 윤상도 부자가 의금부에 압송되어 능지처참됨으로써 문제가 다시 불거진다. 이에 추사는 상소문의 초안을 잡았다는 이유로 연루되고 끝내 제주도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대 권력을 틀어쥐기 시작한 안동김씨 측이 권력의 핵심으로 재부상하는 경주김씨 세력인 추사를 가만 두고 볼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10년 동안 조용하던 안동김씨 측은 윤상도 옥사를 내세워 탄핵에 또다시 불을 지핀다. 순조 임금 때 효명세자의 죽음을 빌미로 전개되었던 탄핵정국이 재현된 것이다. 결국 추사는 안동김씨 측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북경행 대신에 돌아온 것은 혹독한 고문뿐이었다. 친구의 도움으로 죽음 직전에 겨우 풀려나 현종 6년(1840) 9월 4일 제주도로 유배되니 그의 나이 55세였다.

이 사건은 얼핏 복잡하게 보이지만 본질은 매우 단순하다. 권력구조의 변동을 원치 않았던 안동김씨 세력들이 처음부터 추사를 제거할 목적으로 일으킨 것이고 추사는 무고를 당한 것이었다. 그 결과 현종은 “국청에서 수금한 죄인 김정희를 대정현에 위리안치하도록 하라.”(鞫囚罪人正喜大靜縣圍籬安置)고 명령을 내리게 된다.

3. 추사의 제주유배생활

추사의 제주유배생활은 두 차례나 제주도를 찾았던 조카 민규호가 “귀양사는 집에 머무니 멀거나 가까운 데로부터 책을 짚어지고 배우러오는 사람들이 장날같이 몰려들어서 겨우 몇 달 동안에 인문이 크게 개발되어 문채 나는 아름다움은 서울기풍이 있게 되었다. 탐라의 황폐한 문화를 개척한 것은 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전집 권1, 완당김공소전」라고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추사는 제주유배생활 동안에 다른 무엇보다 제주도 문화의 질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평소 제자가 삼천명이라는 “阮翁門下三千士不負才命獨出群”라는 시어가 시사하듯 추사는 많은 제자를 길렀으며 제주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그가 제주도에서 접촉한 사람들은 당대의 위향계층(委巷階層)이었으며 그들은 추사의 영향으로 제주도의 위향문화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추사의 문하 중에 제주도 사람으로 김구오(金九五), 강도순(姜道淳), 박계첨(朴階瞻) 등은 제주필원으로 꼽혔다. 추사는 금석의 가치를 서체에 직결시키고 서법연구의 주안점을 금석학에 두었기 때문에 교학활동에 있어 서도의 강조는 그의 당연한 학문적 방법론 이었다. 특히 시(時)·서(書)·화(畫)일치의 학문적 방법론은 제주유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영향력이 있었다.



제주도의 위향문화운동은 유배인 추사 김정희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학예적 흐름이 큰 부분을 차지하며 근본적으로 이 흐름은 청(淸)의 예원(藝苑)을 풍미하고 다시 조선 학예에 영향을 미쳐 추사 김정희가 삼절의 고봉을 이루고 다시 그의 문하에 중인출신의 무수한 제자를 배출함으로써 기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이 같은 문화운동은 조선 말기 “귤원(橘園)”시회의 모임과 활동으로 계승된다.

당시 조선 최고의 문화수준을 향유하고 청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절해고도 제주도로의 유배편력을 통하여 추사 김정희가 절실히 느낀 것은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욱 더 문화가 인간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개인의 타고난 재능의 계발은 어느 지역 어느 계층 어느 신분에서 처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천재는 거의 없고 평범한 재능을 타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며 그 평범한 재능을 비범한 것으로 바꾸는 것은 개인이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라기보다 차라리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의 계승에 의해서라는 것이 추사 김정희의 생각이다. 따라서 그는 궁벽한 절해고도 제주도에도 문화의 계발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였고 중인계층의 시재를 유난히 반가워하고 격려했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추사는 자신이 속해있는 동양문화권의 정상에 올라 그 문화의 시원과 맥락 지향점을 가늠해 보는 것을 목표로하면서 문화에서 소외된 지역, 소외된 계층에 남다른 관심과 정열을 가졌던 것이 추사였다. 이러한 까닭에 열악한 환경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유배지에서도 문하에 많은 사람들의 내왕이 빈번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배지에서 추사가 제주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것은 바로 그의 덕행과 학문이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바치는 문화적 관심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

4. 추사의 문화콘텐츠적 의미

제주유배문화는 문화콘텐츠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제주유배인들의 희노애락은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매우 의미있는 자료들이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2010년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으로 「제주유배문화의 녹색관광자원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추사와 관련한 콘텐츠로 추사유배길을 조성했다.

추사유배길은 제주유배길 조성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제주유배길 개발 사업은 조선시대 제주에 유배 왔던 유배인들의 제주 생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근간으로 하여 유배길을 재현하는 사업이다. 제주유배길은 과거의 제주 역사의 한 장면이다. 역사적 사실을 현재의 시각에서 유배라는 서사구조를 담아 역사와 문화가 있는 길로 재현되었다.

추사유배길은 조선시대 예술가이자 서예가인 추사의 제주 유배 콘텐츠를 당대의 제주의 현실에 맞도록 재해석 하여 과거를 재현하는 작업을 전제하였다. 추사의 제주유배 생활과 그가 남긴 문헌을 바탕으로 추사유배길 3개 코스가 개발되었다. 추사유배길을 김정희 유배 콘텐츠를 바탕으로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담았다. 추사유배길은 ‘추사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김정희의 파란 만장한 제주 유배 생활을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추사유배길 제1코스는 ‘집념의 길’이다. 이 코스에는 “나는 70평생에 벼루 10개를 갈아 닳게 했고, 천 자루의 붓을 다 닳게 했다”는 추사의 예술혼을 주된 이야기로 담았다. 대정고을에 흩어져 있는 추사 김정희 관련 유적들을 통해 그의 귀양살이의 외로움과 추사체의 완성을 위한 집념과 인간승리를 음미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추사가 유배생활을 했던 적거지와 그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제주추사관, 조선의 선비로서 학자적 의무인 교육에 헌신했던 대정향교를 재현의 요소로 삼았다.

추사유배길 제2코스는 ‘인연의 길’이다. 유배생활 중 시와 편지를 보내고 감귤이나 수선화 등 꽃에 대해 남다른 호기심을 문학작품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차를 통해 초의 선사 등 여러 지인들과 우정을 나누던 추사의 귀양살이의 일상생활과 취미를 들여다보는 길이다. 수월이못, 제주옹기박물관, 서광승마장, 오설록 등 현재의 공간에 과거의 의미를 재현하였다.

제3코스는 ‘사색의 길’이다. 위리안치라고는 하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유배지 처소 인근을 돌아다니며 풍경을 감상하고, 건강을 관리하던 추사의 자취를 통해 추사 김정희의 방향과 사색을 엿볼 수 있는 길로 재현되었다. 주요지점으로는 산방산, 안덕계곡 등이다. 추사유배길은 집념의 길, 인연의 길, 사색의 길을 통해 유배인이 자신의 유배의 처지를 극복해 자기 완성에 이른다라는 유배의 서사구조를 획득하였다.

추사유배길 이외에 만들어진 콘텐츠는 추사유배밥상이다. 추사는 유배지 제주에서 부지런히 읽고 썼다. 추사 김정희가 시와 편지는 당대의 제주 상황을 재현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추사희의 글들을 통해 보면 60대 나이에 많은 제자를 길러낼 수 있었던 근간에는 인삼장복, 차, 단전호흡이라는 비법이 있었다. 김정희는 인삼을 장복했다. 인삼을 배추나 무 씹듯이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단전에 대한 해박해 단전호흡을 했으며 차를 즐겨 건강을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추사는 부인 예안이씨에게 제주의 소식을 전하러 한글 편지를 썼다. 필요 물품 요구 등의 소소하고 아끼자기한 가정생활이 한글로 전해지고 있다. 편지를 보면 당시 제주에는 김치가 없었으며 부인이 보내준 소금 많이 친 김치를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사의 음식에 대한 기록은 당대 유배인은 물론 제주인의 삶은 엿볼 수 있는 자료다. 추사가 남긴 자료들을 바탕으로 당시 유배인들의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배음식을 재구성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제주유배문화 개발 사업의 하나로 과거의 재현으로써 추사유배밥상이 개발되었다. 추사유배밥상은 추사 김정희가 아내에게 쓴 편지 등의 콘텐츠를 활용해 현재적인 시각에서 재구성하였다. 추사유배밥상의 구성을 보면 보리밥, 콩국, 보말 뽕뽕이 장, 유채나물, 고사리나물, 무나물, 메밀호박전, 고등어구이, 무 연근석박지, 무 녹차잎 장아찌, 강이젓, 쉼다리 등이 조합이 되어 재현되었다.

5. 결론

제주유배문화에 대한 문화콘텐츠적 접근은 이제 시작이다.

그 단초가 추사 김정희를 중심으로 한 추사유배길 개발과 추사유배밥상 등이며 이밖에 유배음악제, 유배영화제, 유배꽃차전시회 등이다. 앞으로 보다 수익성이 요구되는 관광스토리텔링의 내용과 형식을 갖춘 콘텐츠들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JDI**